

J프로젝트 발목잡은 '대못' 뿔뿔히

朴대통령 "영암 기업도시 등 지역 희망될 수 있도록 하라"
정부, 사업자 담보 부담 덜어줘...부동지구 사업자도 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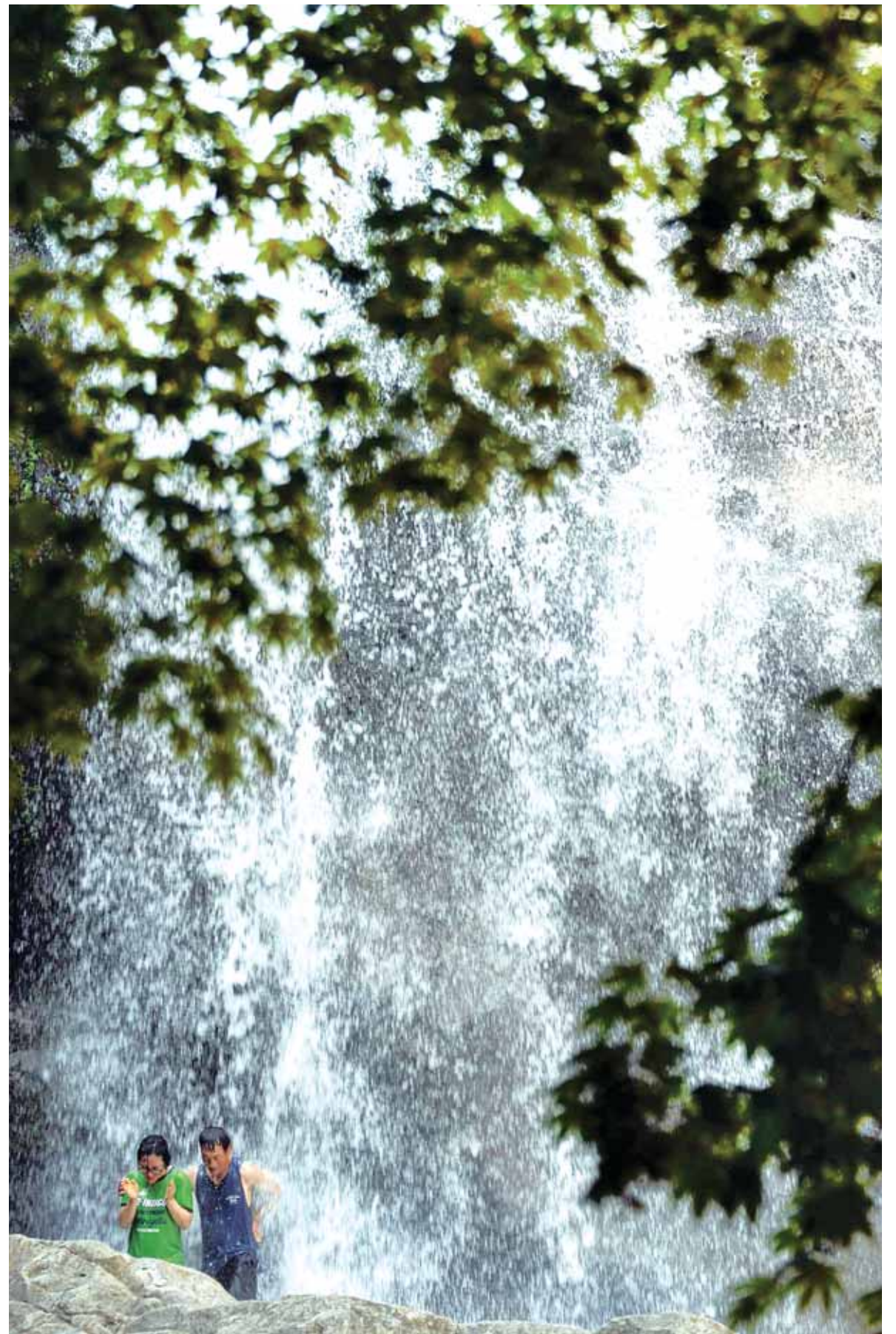
정부가 전남도 최대 현안 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풀어줘 J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프로젝트가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1년 3개월을 끌어온 J프로젝트 부동지구 행정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하는 등 사업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영암(J프로젝트)을 포함해서 기업도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며 "기업도시가 그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상까지 포함해 10여 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J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삼호지구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레저(주) 이재성 대표는 "농어촌공사와 공유수면매립 면허 양수·양도 협의의 중이나 전체 금액의 90%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프로젝트는 영암과 해남 일대의 간척지에 들어서는데 땅주인인 농어촌공사 측이 간척지를 사업자에 넘길 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감정평가액

의 90%를 이행지급보증증권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보증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구성지구의 경우 간척지 양수대금 1020억원 중 이미 납부한 계약금 102억원을 제외한 남은 대금 918억 원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 보험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료만 16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 제출 대신 계약금 20%와 질권설정 등으로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J프로젝트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2지구 개발 과정에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규제가 대폭 완화돼 최근 전남도가 중국기업과 10억달러 규모의 투자유



치 협약에 성공한 삼포2지구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다툼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부동지구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결과 원고 승소했다.
선카운티(주)가 '사업타당성이 낮다'며 개발계획 승인신청 자체를 반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로 개발 무산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폭염 물렸거라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후 구례군 산동면 수거리 중기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15m 위에서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폭포수에 몸을 맡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박지정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청신호

"8월 광주 YLP행사에 北 청소년 참가해 달라"

방북 램케 UN보좌관 요청에 北 긍정적 답변

오는 8월 광주에서 열리는 YLP(유스리더십 프로그램) 유엔행사에 북한 청소년 4명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U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한 윌프리드 램케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이 북한 체육계 고위 인사들(이종무 체육상, 장웅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축구연맹, 여성스포츠위원회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오는 8월 광주에서 열리는 YLP에 북한 청소년 4명의 참가를 공식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 체육당국이 UN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U대회 조직위원회와 UNOSDP이 광주에서 개최하는 공동프로젝트인 YLP는 분쟁지역 또는 개발도상국 청소년을 스포츠 개발과 평화전문가로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오는 8월 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간 광주 호남대에서 열리는 YLP에는 18개국 3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이 참가를 결정하면 19개국 34명으로 늘게 된다. 북한 청소년의 참가가 현실화될 경우 공식행사에서도 남북한 청소년의 첫 만남이 되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단절된 남북스포츠 교류도 재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

게 된다.
특히 U대회 조직위와 UNOSDP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2015년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및 남북스포츠 교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램케 보좌관과 북한 당국자 사이에서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UN에서 U대회 남북단일팀 성사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정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은 올 성장률 2.6%→2.8% 상향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을 이처럼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7%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종전 2.3%를 1.7%로 내렸다. 내년 경제 전망도 성장률은 종전 3.8%를 4.0%로 올렸고, 소비자 물가는 종전 2.8%

를 2.9%로 상향 조정했다.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과의 차이인 마이너스 GDP갭은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경예산 시행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제도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는 추세"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례 35.7도...광주·전남 주말까지 불볕더위 3개군 폭염주의보

광주·전남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주말까지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초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소식이 예보됐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를 기해 곡성, 구례, 화순 3개 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일 때 내려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구례가 올 들어 가장 높은 35.7도를 기록했다. 다음 주 초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32.6 장성 32.1도, 보성 31.6도, 영광 31.4도, 목포 31.1도 등으로 30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은 13일까지 북태평양 고기

압과 강한 일사로 인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오는 14~15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5~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다고, 다음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다고 전망했다.
/박지정기자 halo@kwangju.co.kr

국민 여러분께 謝罪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새벽, 서울발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항공 소속 214편 항공기의 착륙 중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이 謝罪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중국 두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노력과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탄에 잠기신 유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부상자 및 탑승객 여러분께 머리 숙여 謝罪의 말씀 올리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 당국에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및 현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후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 탑승객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謝罪드리며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일동은 신속하고 원만한 사후 수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아시아나항공(주) 사장 윤영두
임직원 일동